



제3분과

기술사윤리, 기술자격, 기술교육, FTA



글 | 洪興杓
(Hong, Heung Pyo)

- 건설기계기술사, CMP
- 벽산엔지니어링(주) 이사
- 한일기술사 교류 위원회 위원

E-mail: hhp-machine@hanmail.net



금번 제42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엄은 기술과 창조의 도시 나고야 중심부 소재 캐슬플라자 Hotel 옆 “윙 아이이치” 회관에서 ‘각종 대체 energy 전략에 관한 기술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전날(10월17일) 양국간 8번째 이루어진 한일기술사 친선축구대회에서의 짜릿한 승리감과 이어진 전야제 행사에서의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에도 우리 축구단 단원들의 숙소인 치선인 나고야 Hotel에서 다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낙오자 없이 합동 심포지엄장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본행사의 의미 및 내용을 열심히 청취하였다.

이어 각 분과별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중식을 해결한 후 13:30분부터 분과별 주제 하에 오후 세션을 진행하였다.

본인은 제3분과에서의 발표를 위해 1104회의실에 참석하였다.

당초 양국에서 협의 된 바에 따라,

좌장은 상하수도 기술사인 일본측에서 맡으시고, 부좌장은 한국측 전상백(한일기술사 교류위원회 고문)기술사께서 수고해주셨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春田 要一(금속부문) 기술사로 ‘ET회에 있어서 공학윤리의 실천’에 관한 발표로 2006년도부터 “ET no Kai”에서 대학교 및 기술전문학교의 엔지니어윤리교육을 하였던 사례로서 많은 교수들의 교육이 유니버스강의를 필요로 하고, 강의의 질을 담보로 하는 동안 한층 더 높은 강의를 촉진되었으며 더 나은 강의를 지도하는 동안 끊임없는 발전이 되었다는 “ET no Kai”에 의한 엔지니어윤리교육 사례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의 유성호(소방)기술사께서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PBD)사례’에 관한 발표로 성능위주 설계가 1년 이상 진행되면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사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최적설계가 제공되었다고 각종 simulation의 공학적인 예를 들어가며 검증을 객관화 할 수 있는 DATE BASE화와 함께 경제적 효과 실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성능위주설계로 발전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橋本 義平(정보공학

부문) 기술사로 'King dome of Thailand에 있어서 기술자 윤리교육 사례'로 최초 태국의 졸업생들에게 엔지니어윤리 강연기회에서 엔지니어 윤리교육의 사례를 주제로 그의 경험을 소개한 발표가 있었다.

약 10분간의 휴식시간 후,

네 번째, 발표자는 본인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법제화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발표 전 이 내용은 제1분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인데 발표자수의 제한으로 제3분과에 발표하게 됨을 양해말씀 드렸고 전상백 고무님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는 인사로 시작하였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진시설로서 도시내 청소차량이 운행하지 않은 도시 청소시스템으로 친환경 인프라구축하는 사업으로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의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정책과 상반되어 관련지침(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이 제정 중단된점과 제도화 추진상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제도화 추진방향의 수정을 제시하고 기존시설과 비교 검토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법, 제도화 설치, 관리기준 개정방안 및 운영관리, 시설개선을 발표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平野 輝美(화학부분) 기술사로 '법공학에서의사고 해석 및 사례'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법의학과 작년의 사건, 사고 분석을 위한 체계등을 소개하였고 법의학에서의 체계 및 분석보고와 함께 frame work를 사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섯 번째, 발표자는 한국측 남성원(철도차량) 기술사의 '지하철 승하차 시간 분석을 위한 여객유동 해석법'을 여러 가지 해석법으로 소개하였고, 대규모 승객 유동 해석을 위한 입자유동해석법인(DEM)에 기초한 보행자 유동 해석 기본 algorithm을 개발하여 철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 model에 대하여 보행자 유동을 정량적, 정선적 해석 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측 좌장의 인사를 끝으로 제3분과 발표를 마쳤다.

(원고접수일 2012. 12. 11)